**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눅 11:33-36>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문제제기: 지금 여러분의 눈은 성하십니까?

메시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돌아보십시오.

1. 내 눈의 한계를 인정하기

2. 내 눈의 문제를 점검하기

3. 내 눈의 촛점을 유지하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눈이 성하여 빛을 잘 내면 그 빛을 받아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성하지 못하여 빛이 좋지 않으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즉 우리 눈이 성한 상태에 있도록 늘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작은 문제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트집잡는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와져서 작은 문제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무엇을 이제 그만 바라봐야할 지를 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뿐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하 선생의 <신록예찬>이라는 수필은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있었던 유명한 글입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 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아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곁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중에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편, 염세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이라는 분이 쓴 <권태>라는 제목의 수필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서로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을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먹었노?”

이상이라는 작가의 눈에는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한가로운 농촌의 여름이 너무나 짜증스럽습니다. 이것은 이름만큼 독특한 작가의 취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 나이에 폐병이 들어 요양을 위해 농촌에 내려가 있어야 했던 작가의 안타까운 상황과도 관련됩니다. 이처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찬 상태에서는 무엇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빛이 잘 비칠 수있는 곳에 두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잘 불 수 있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똑 같은 잘못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더 욕을 먹는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그리고 그 빛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시각이 온전한지에 대해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본문 35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밝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 눈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한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설명은 오직 그것을 죄와 연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과거에 죄를 많이 지어서 현재에 그 만큼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자면, 우리와 함께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켜 이해하셨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놀라운 치유의 행위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최선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들의 동일한 반복으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삶에는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사건,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틀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일들도 끼어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위험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교만으로 인해 오류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고침받은 맹인이 의아해 하며 대답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며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말하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어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눈 뜬 사람을 다시 만나 물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이니라.” 그러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엇보다 심각한 죄는, 마땅히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막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야냥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직 세리와 죄인처럼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과만 상종하시고, 고상한 상류층이나 오히려 나름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롬3:9-10)” 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환부를 정직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건강하다 주장하는 사람은, 그가 사회의 하류층이든 상류층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과 상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는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좁은 시각 안에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빛을 넣어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줄 믿습니다. 내 시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눈병에 걸려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눈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군에 입대했었는데요, 훈련코스 중에 수영훈련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마지막 날에 테스트를 받습니다.수영장 바닥에 발을 대지 않고 25미터를 떠서 가면 외박을 갈 수 있고, 못 하면 못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입대했기 때문에 외박을 가려면 그 수영훈련을 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눈병에 걸린 것입니다. 눈병에 걸리니까 전염을 이유로 수영훈련에 열외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제가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벤치에 앉아 구경해야 했던 저는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외박인데.. 이대로 허무하게 물 건너 가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서 다른 병도 아니고 눈병을 주신 것일까? 저는 그 이후로 참 눈병이 싫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병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테스트를 하루 앞두고 수영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고, 테스트에서 저는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처음에 얼굴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 버거웠던 제가 오직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물 속에서 정신없이 팔을 휘젓다보니 어느덧 반대편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꼭 해야 한다 생각하면 하게 되는구나, 그때 저는 제 안에 있는 잠재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다시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엔 또 다시 수영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와 타인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면, 처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거부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 3:19-21).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힘드십니까? 말씀을 읽으려 하면 자꾸 잡생각이 나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잠에 빠져 드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랫 동안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셨던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 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한순간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지만, 눈을 뜨려 노력하면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 곧 괜찮아지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좀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의 그 불편한 눈부심 때문에 다시 익숙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편, 우리의 시력에 이상이 생기는 두 번째 경우는 눈에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톱밥과 같은 작은 티 하나가 들어가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면서 전방을 제대로 응시하기 어렵습니다. 타고난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눈에 불순물이 끼면 그것을 빨리 빼내는 것 외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눈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건 잘 찾아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감각합니다. 내 눈에 무언가가 끼어 있으면 답답해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우리는 여기에 그렇게도 무감각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 불순물이 너무도 오랫동안 내 눈 속에 내 몸의 일부로 계속 있어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처럼 내 오래된 판단력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판하는데 빠른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3-5).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의 문제가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내가 가진 문제로 인해 내가 타인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며,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비로소 나의 그 온전한 판단력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남은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고 맑은 눈을 늘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그 눈빛 속에서 나의 시각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교정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 눈에 끼어 있는 불순물을 인식함과 아울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예수 안에서 간과하셨다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용서의 눈이며, 교만한 지식의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사랑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혹시 내 눈에 문제가 없는지 늘 성실하게 점검하며, 용서의 눈, 덕이 되는 말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온전하려면,

우리 눈의 촛점을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눈에 관한 말씀 바로 앞에는 악한 세대가 예수님에게서 표적만을 구하고 그분을 직접 보면서도 믿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관한 말씀 바로 뒤에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내용 사이에 눈에 관한 말씀을 위치시키며 복음서 기자 누가는, 이렇게 많은 한계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시각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평행본문은 마태복음 6장 22-23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의 이 눈에 관한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 눈의 초점을 돈과 그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눈의 초점이 돈에 가 있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급기야 돈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이 많아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둔 후 속으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이 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려 주신 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들고 찾아온 부자청년을 기특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여정에 치명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의 초점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단한 삶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든 그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해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베드로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을 한결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 시각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도 무던히 노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전날 늦은 시간까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하신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모든 필요를 당장에 모두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사단의 시험은 바로 이 유혹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홀로 기도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분의 이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뜻을 복종시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몸의 등불인 눈의 건강을 위해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한계가 많고,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초점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눈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 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 눈의 초점을 바르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2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보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